

[인터뷰-김종성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스마트 농업·물관리 혁신 경기 쌀 산업 뒷받침"

윤 박현욱 기자 | 승인 2025.08.29 09:16

제10회 (사)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회원대회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은행·지역개발 3축 강화
노후 수리시설 보수·스마트 물관리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팜·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미래농업 지원 확대



김종성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경기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올해 4328억원을 투입해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촌경제 회복, 농지은행 활성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종성 본부장은 "식량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농업의 생존 조건"이라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현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물 관리 최선 호우 피해 최소화 기대

실제로 본부는 올해만 2029억원을 투입, 157개 지구에서 농촌용수 개발, 배수개선, 노후 수리시설 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성 덕우지구에서는 246억원 규모의 저수지 치수 능력확대사업이 설계 단계에 들어가 극한 호우 피해 최소화가 기대된다.

본부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142개 지구에 973억원을 투입했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이천·포천·양평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도 수립 중이다.

김 본부장은 "농촌은 삶터·일터·쉼터가 조화돼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공사는 지자체·전문가·주민과 협업해 경기 농촌을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은행·스마트 물관리 농업 경쟁력 제고

본부는 전국 최대 규모인 2909억원을 확보해 농지은행 사업을 추진하며 맞춤형 농지지원, 농지연금, 경영회생농지지원, 이양은퇴직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187ha의 우량농지를 매입해 농민에게 임대할 계획으로, 김 본부장은 "농지은행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규모화 영농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경기·인천 지역 5만7000여ha의 농경지와 저수지 110개, 양·배수장 454개 등 958개 기반시설을 관리하면서, 노후화율이 49%에 달하는 시설의 보수·보강과 스마트 물관리 도입에도 힘쓰고 있다.

평택지사 배수장 5개소의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의사결정체계를 검토 중이며, 관내 56개 배수장 중 38개소에는 무인자율제어 펌프시스템을 구축해 집중호우에 자동 대응하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데이터 기반 예측과 인공지능 제어를 확대해 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농업 확산·농업인 복지 강화

경기지역본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만 41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해 청년농과 후계농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노동력 감소와 이상기후 속에서 스마트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AI·자동제어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현장과 연구가 연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도 운영한다. 농지를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올해부터는 일시지급 방식도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는 “평생 농업에 헌신한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쌀전업농과의 스킨십도 강조했다. 그는 “쌀전업농은 공사와 가장 긴밀한 파트너”라며 “쌀 수급 불균형, 기후위기 등 도전이 크지만 경기지역본부는 언제나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하며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산업의 미래는 현장에서 길을 찾을 때 더욱 단단해진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농업인의 곁을 지키며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욱 기자